



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대구법**
 ↑세상과의 단절 ↑시와 술에 마음을 주고
 절세의 **고종(孤蹤)**이라 **시주(詩酒)**에 **회포** 붙여
 세상과 담 쌓은 외톨이의 처지라, 고독단신(孤獨單身)의 처지
 불출문(不出門)의 하오면서 편케 편케 **날 보내니**

문 밖으로 나오지 아니함 세월을 보내니
 춘풍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 온다

시간의 경과, 계절의 변화(봄---->가을)
 남천(南天)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 보니 오랑캐 **지경**이라
 국경

개가족 상하착(上下着)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개가족으로 만든 옷 ↑ 굶주린 백성의 아침과 저녁
 조밥 피밥 기장밥은 **기민(饑民)**의 **조식**이라
 ⇒ 북방의 유배지에서 맞이하는 가을

본관(本官)의 **성덕(聖德)**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수령의 성스러운 덕 ↑ 보름쫂م 걸려 살아나더니
 실 같은 이내 목숨 **달반을 걸렸더니**

천만의외(千萬意外) 가신(家信)오며 **명녹이** 왔단말가
 종의 이름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 유배지에서 고향(집)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절세에 있던 사람 **항간에 돌아온 듯**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 ↳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돌아온 듯
 나도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서봉을 떼어 보니 **정찰(情札)**이 몇 장이고
 따뜻한 정이 어린 편지
 폭폭이 친척이요 면면이 **가향**이라
 고향 소식이로구나
 지면의 자자획획 자질(子姪)의 눈물이요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과 초운*인가 양대운우* 불쌍하다
 화자와 아내가(부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표현
 그중에 사람 죽어 **돈몰(頓歿)**이 되단 말가
 사라지다

명녹이 대코 앉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 일을 어이 알리
 ⇒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가져 온 명녹
 --> 과거와 현재의 상황 대비

만수 천산 멀고 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풀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를 수 없겠구나
 ⇒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 해 석 >

한가하면 시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세상과 담 쌓은 외톨이라 시와 술에 마음을 담아
 문밖으로 나오지 않고 편하게 세월을 보내니,
 봄바람에 잠에서 깨니 산자락에 서리가 온다.

남쪽 하늘에는 불쌍한 기러기,
 북쪽을 굽어보면 오랑캐의 국경.
 개가족으로 만든 옷은 상놈들이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굶주린 백성이 아침저녁으로 먹는다.

수령의 성스러운 덕과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내 목숨이 보름쫂م 걸려 살아나더니
 뜻밖에 집으로부터의 서신을 들고 명녹(중, 하인)이
 왔단 말인가
 놀랍고 반가워서 미친놈이 다 되었다.

세상과 연을 끊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돌아온 듯.....

나도 고향이 있었던가
 편지봉투를 뜯어보니 따뜻한 정이 어린 편지가 몇 장인가

종이 가득 친척 소식, 고향 소식이 담겼구나.
 편지지의 글자마다 아들과 조카의 눈물이,
 옷 위의 그림 빛에는 아내의 눈물이.....
 소동과가 사랑했던 초운, 둘 간의 뜨거운 사랑.....
 불쌍하다.

그 중에 사람이 죽어 사라졌단 말인가
 명녹이를 앞에 두고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니
 집 떠난 지 오래 되어 그 후 일을 어찌 알겠는가



겹겹이 쌓인 강산을 건너야 할 정도로 멀고 먼 길,
어찌 돌아갈 것인가
덤덤하게 쌓아두었던 이런저런 감정들, 다 풀 수 없
겠구나.

주 제 : 유배지에서 느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해 설

철종 때 김진형이 함경도 명천으로 귀양을 가서 거
기서의 생활과 느낀 점을 노래한 장편 가사이다. 자
신이 유배된 내력과 배소에 있는 유생들과의 교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배소에 있는
기생들과의 풍류와 연정 등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묘사와 서술은 조선시대
의 정치적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현
법과 예술적인 형상화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
품이다.

KSP